

# 광주시 중앙부처 평가 29개 상 싹쓸이

민선 8기 들어 특교세 13억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공동 1위  
5등급 청렴도 2등급으로 끌어올려

광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각종 정부 중앙부처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전국 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체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민원실 내 사회적 약자 배려 장구를 마련하고 광주복지플랫폼 구축하는 등 민원행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전국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또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융부즈관리위원회 신규 도입 등 고충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월등한 성적을 얻었으며,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민선 7기만 해도 청렴도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광주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부패방지제도 구축,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향상, 기관장·교위직 의식 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청렴 노력도 분야'에서 1등급(17개 시도 중 1위)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 머물렀으나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으로 끌어올렸으며,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종합훈련인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도 다중밀집시설의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해 현실감 있는 입체 훈련을 실시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민선 8기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출산·보육 분야에서도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직장맘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인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는 전국 최초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또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모든 임신·출산·돌봄 지원정책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통합돌봄 정보플랫폼인 '광주아이킴(www.광주아이킴.kr)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주관 각종 평가에서 총 29개의 수상 실적을 냈으며, 특별교부세 등 13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같은 수상 성과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플랫폼 '광주on',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월요대화'와 '수요 정책소풍'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 소통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시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하는 창의적 행정을 추진한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정부 주관 각종 평가 및 공모대회에서 얻은 우수한 성과는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행정혁신의 목표를 두고 모든 공직자가 민생에 이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구조 야생동물 사진 빌려드립니다”

광주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120여점 교육기관 등에 대여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구조 야생동물 사진 96종 120점을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야생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진 단체에 무료 대여한다”고 9일 밝혔다. 대여 구조야생동물 사진은 구조현장 사진, 치료 및 돌봄 사진, 치료 후 방생 현장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달, 하늘다람쥐, 수달 등 천연기념물 및 국내멸종위기종 20종 39점, 일반

구조 야생동물 76종 81점이 포함됐다. 구조야생동물 사진 대여 신청은 10일부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전화(062-613-6651~6652) 등으로 할 수 있다. 대여 사진의 현상이 동과 설치 등은 구조센터에서 지원한다.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센터개원 4주년을 맞아 지난달 광주시에서 선보인 '광주야생동물구조작품(작전)전'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번 대여 사업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야생동물의 교육과 보호에 관심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예산 2317억 상반기 조기 집행

광주도시공사는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상반기 2317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총 예산은 3564억원으로 이 중 65%인 2317억원을 조기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3월 말 현재 신속집행 실적은 1475억원으로, 당초 3월 누계 목표액 1255억원 보다 22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도시공사는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우선 집행을 추진하고, 신속집행상황실 운영을 통해 집행현황 점검 및 부진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또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조기 발주, 선급집행, 지급기간 단축 등 관련 제도도 적극 활용 중이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국내외 경기 불안정 속에서 공공기관의 신속집행은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통해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인공지능사업단, AI유니콘 기업 육성·지원 대폭 늘린다

AI 창업캠프 기업 원탁 회의

기업들 “불황 속 투자 어려움” 호소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인공지능(AI)창업캠프 입주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6일 광주 동구 AI창업캠프에서 입주 기업들과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 투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AI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김준하 단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김민규 감성텍 대표, 이선관 고스트 패스 대표, 정광명 인트플로우 대표, 넥스툼 김성중 대표, 링크캠퍼스 이현영 대표 등 AI 창업캠프 입주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AI 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불황 등의 여파로 투자 유치와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 각종 난관을 딛고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도, 추가 자금 부족으로 실질적 사업화 단계에서 생존 위기를 겪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참여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이선관 고스트패스 대표는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서 전문 인력 확보와 투자, 지원 사업이 관건인데, 경제난 속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



다”며 “광주형 펀드 등 AI창업 캠프 입주 기업을 우선적으로 투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투자 지원 사업이 추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업별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 간의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제공되기도 했다.

김준하 단장은 이날 AI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을 탈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간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운영 중인 AI창업 캠프 1호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직접화하는 배이스캠프로, 2호는 성장(Scale-up) 진입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등 75개사가 입주해 민간 창업기획자(AC), 벤처기업 투자자(VC)의 협업을 통해 교육, 컨설팅 등 창업기업 육성과 사업화 및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AI 기업·기관들은 총 155개 사로, 이 가운데 106개 사는 광주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무소 개소를 마쳤다. 지역에서 신규 채용한 인력도 580여 명에 이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광주시 법인 3만여곳 대상

광주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인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 3만여 곳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

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 신고는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해야 한다.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영희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은 2만8695건, 1878억원이었으며, 99.8%가 전자신고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지원

올해 183개 단체에 12억원

광주시는 “올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183개 단체를 선정하고 12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사업을 신청한 193개 단체에 대해 소관부서와 종합부서의 검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지원액과 평가결과, 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했다.

선정된 단체는 광주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를 통해 단체별 지원 금액을 열람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단체 등록한 소관 부서를 통해 10일부터 가능하다.

광주시는 선정된 단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4월 중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